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2. 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UN, 회원국에 가자 난민지구 지원 지속 촉구
 - 1.28 「구테흐스」 UN 사무총장은 UN 일부 직원의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(UNRWA)에 대해 회원국들이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
 - ※ 최근 미국·호주·영국·독일 등 서방국들은 UNRWA에 대한 지원을 잠정 중단
- 英, 자국내 이란 반체제 인사들 대상 테러위협 경고
 - 1.30 영국 정부는 이란 범죄조직이 중동 정세의 혼란을 틈타 이란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것으로 판단, 이에 同人들에게 신변 안전 및 테러위협에 대해 경고했다고 언론 보도
 - ※ 영국 정보기관인 MI5와 경찰은 지난 2년간 이란이 영국에서 반체제 인사 및 언론인 10여명에 대한 암살·납치 음모를 획책했다고 언급

미주

- 美, 이라크·시리아에서 철군 검토
 - 1.25 언론은 美 행정부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美軍 주도 국제동맹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, 시리아에서도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실제 철군이 이뤄질 경우 ISIS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
- 美, 親이란 민병대의 무인기 공격에 3명 사망
 - 1.29 언론은 親이란 민병대가 시리아 국경 근처 요르단 북부 미군 주둔지를 무인기로 공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당했으며, 이에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사망자 애도와 보복조치를 언급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이번 사건이 하마스 테러 이후 처음으로 美軍이 사망한 사례이며, 요르단 정부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지목하고 규탄했다고 부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'하마스가 자선단체 사칭해 모금' 주장
 - 1.25 언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온라인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을 돕는 자선단체를 사칭해 매달 최소 800만달러(약106억원)에서 최대 1,200만달러(약160억원)을 모금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이스라엘은 동맹국과 공동으로 하마스의 재정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자금줄 차단에 착수
- 이란·파키스탄, 대테러 협력 확대 합의
 - 1.29 언론은 최근 미사일 공습*을 주고받으며 충돌한 이란과 파키스탄이 29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상대국 주권 존중과 테러 척결을 위한 공조 등 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보도
 - *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무장조직 '자이시 아이들의' 근거지를 미사일로 공격, 이에 파키스탄은 18일 이란 시스탄-발루치스탄 지역을 보복 공습

아·태평양

- 日, 戰犯기업 폭탄테러 무장단체 조직원 자수
 - 1.27 언론은 1970년대 일본 전범 기업 본사 및 공장을 잇따라 폭파했던 극좌파 무장단체 '東아시아 反日무장전선'의 조직원을 자처하는 용의자 「기리시마 사토시(70세)」*가 49년만에 자수했다고 보도
 - * 同人은 '75.4월 '한국산업경제연구소' 건물 폭파사건의 용의자이면서 49년간 지명수배된 인물이며, 조직원 대부분은 체포되었으나 同人만이 현재까지 未체포
- 필리핀, 가톨릭 미사 폭탄 테러 용의자 등 사살
 - 1.28 필리핀軍은 지난 25~26일 남부 민다나오섬 라나오델수르州에서 대테러 작전을 전개해 이슬람 무장단체 '다울라 이슬라미야'(DI) 소속 조직원 9명을 사살했으며 달아난 조직원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발표
 - ※ 사망자 중 2명은 1.3 가톨릭 미사 폭탄 테러(사망 4, 부상 54) 용의자

캐나다 퀘벡市 발생 모스크 총기 난사 테러

- '17.1.29. 20시경 캐나다 퀘벡市 소재 모스크에서 저승사자 복장을 한 남성이 자동소총으로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사망하고 17명 부상
 - ※ 당시는 저녁 예배 시간대로 신도들이 운집해 있어 다수 인명피해 초래
-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인 프랑스제 캐나다人 「알렉산드르 비소네트」 (당시 27세)를 체포하고, 1급 살인혐의로 기소
 - 同人은 평소 美 「트럼프」 대통령을 존경하고 다문화주의 반대 단체를 지지해온 극우성향의 인물로 밝혀졌으며, 관련 사건은 최종적으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'외로운 늑대'型 테러로 결론
- 「트뤼도」 캐나다 총리는 同 사건을 '비열한 테러 행위'라고 비난하고 "이와 같은 非이성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"고 강조
 - 「쿠이아르」 퀘벡州 장관도 "야만적 폭력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"면서 관련 사건을 규탄하고, 부상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시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,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는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 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美 극우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 선동 과정에서 同용어를 사용하며 '자생적 테러범' 의미로 변화
- (특징) △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 준비·실행 △독자적인 은밀한 계획·공격으로 사전 징후포착 곤란 △주로 '소프트타겟' 대상 '로테크' 공격 자행